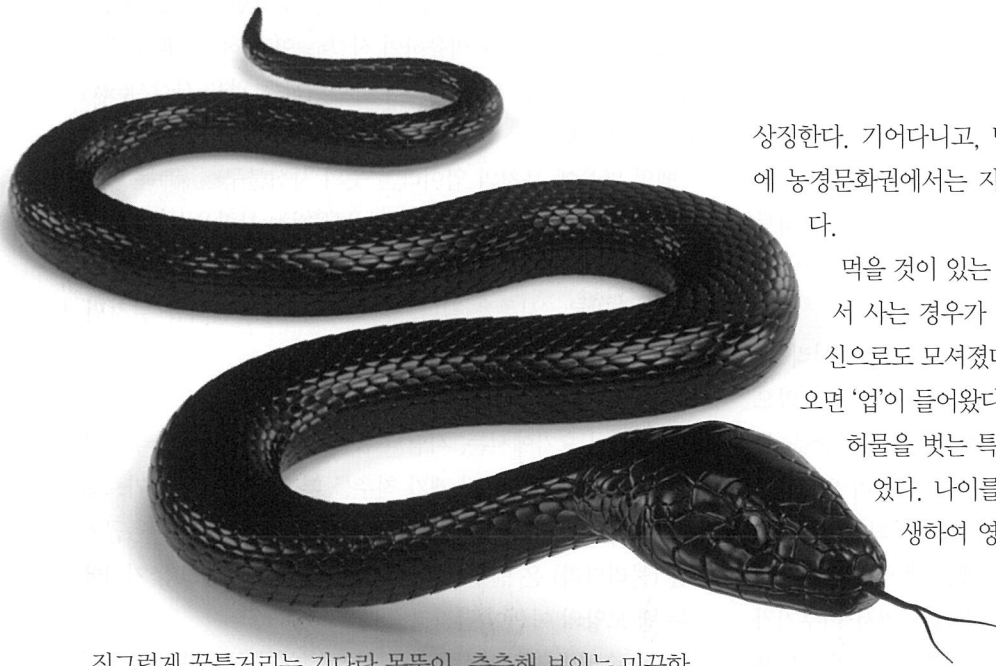


12지 이야기(6) 뱀 - 의술의 신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수필가
cgj8509@comcast.net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기다란 몸뚱이, 축축해 보이는 미끈한 피부, 날름거리는 혀, 상대를 주시하는 차가운 눈초리의 뱀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혐오감을 느낀다.

무서운 독을 품고 있으며,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겨나게 했다는 사실까지 기억하는 바람에 뱀을 볼 때마다 공경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품기 일쑤다. 우리나라의 민화에서 뱀의 그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지구상에는 2,500여 종의 뱀이 살고 있으며, 그 중 약 ¼ 정도가 독을 가지고 있다. 길이는 5센티미터에서 14미터에 달하고, 색상이나 무늬도 가지가지다. 쥐, 개구리, 새, 새알 등을 먹는 육식동물이다. 죽은 동물은 먹지 않고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데, 새알을 먹은 뒤 껍질은 토해버린다. 겨울에는 땅속 깊이 들어가 잠을 잔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뱀은 그러나 동서 고금을 가리지 않고 신화 전설 민담의 주인공이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상징한다. 기어다니고, 땅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 살기 때문에 농경문화권에서는 지신(地神)으로 간주되어 풍요를 상징한다.

먹을 것이 있는 곳, 흔히 사람이 사는 집의 밑바닥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팔러 집을 지킨다는 귀신으로도 모셔졌다. 옛날, 우리는 집에 구렁이가 들어오면 ‘업’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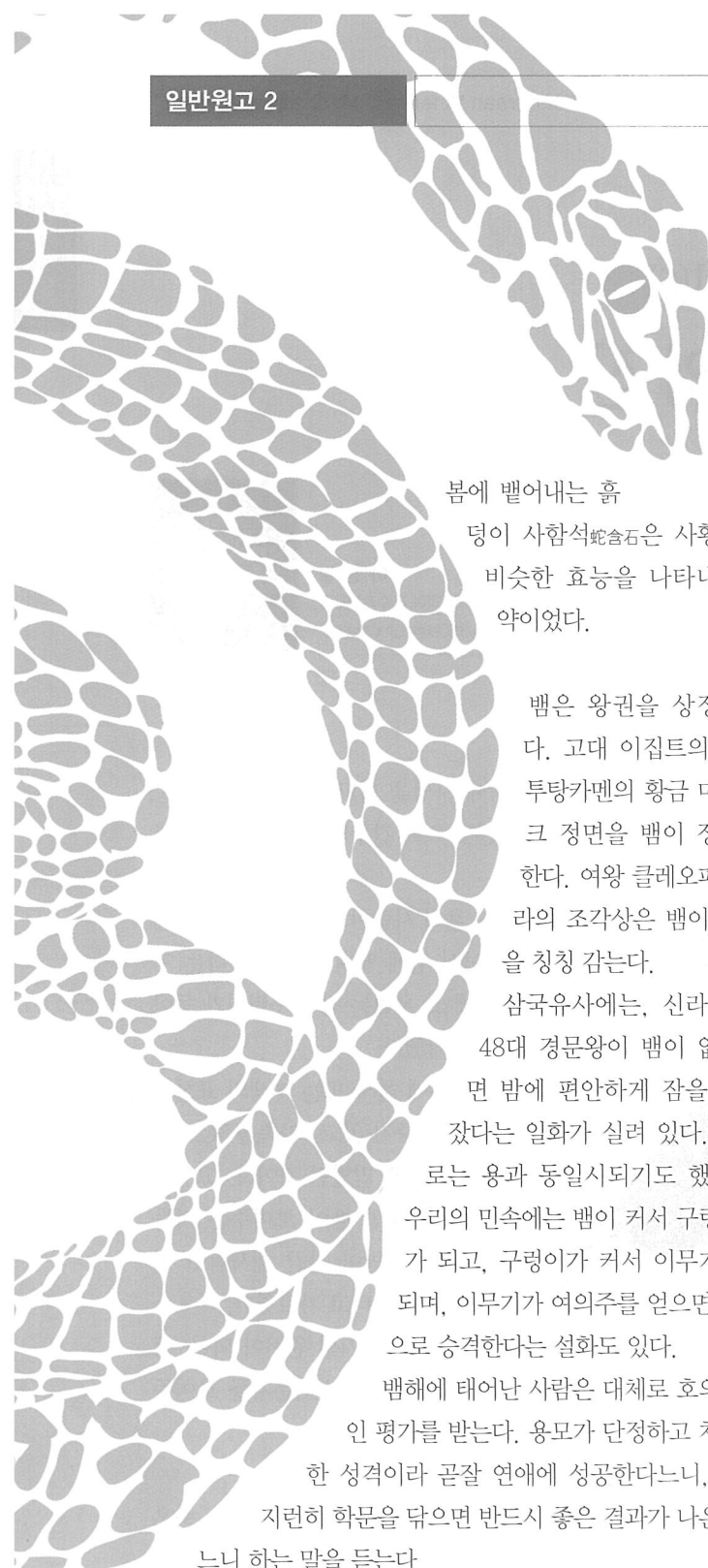
허물을 벗는 특성 때문에 불사 또는 재생의 표상이었다. 나이를 먹어도 죽지 않고, 가죽을 벗고 재생하여 영원히 산다고 믿었던 것이다. 고인들은, 사는 동안 뱀이 보여주는 거듭남을 본받아 가끔 새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특성은 뱀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의 원천이 되어, 뱀이 얼마나 집념이 강하고 끈질기며 억척스러운가를 보여준다.

뱀은 의술의 신이었다. 그리스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은 사람을 살려낸 신이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언제나 뱀 한 마리가 둘둘 말려 있는 짧은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미국 군의관의 뱀지에는 십자가 나무에 두 마리의 뱀이 감겨 있으며, 유럽의 병원이나 약국의 문장에도 뱀이 그려져 있다. 의료보험회사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는 이름처럼 두 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에는 십자가 안에 사람이, 다른 하나에는 방패 안에 뱀이 들어 있다. 동양에서는 뱀이 약재로 사용되었다.

쓸개에 병이 들어 영긴 사황(蛇黃)은 어린 아이의 경기를 다스리는 데에 쓰는 귀한 약이었으며, 동면할 때 입에 물었다가



봄에 뱀어내는 흙

덩이 사함석(蛇含石)은 상황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는 약이었다.

뱀은 왕권을 상징했다. 고대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정면을 뱀이 장식한다. 여왕 클레오파트라 의 조각상은 뱀이 몸을 칭칭 감는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제 48대 경문왕이 뱀이 없으면 밤에 편안하게 잠을 못 잤다는 일화가 실려 있다. 때로는 용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우리의 민속에는 뱀이 커서 구렁이가 되고, 구렁이가 커서 이무기가 되며,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으면 용으로 승격한다는 설화도 있다.

뱀해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 용모가 단정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곧잘 연애에 성공한다느니, 부지런히 학문을 닦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느니 하는 말을 듣는다.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듯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많으며, 흔히 어려웠다가도 다시 장사나 사업이 잘 되어 웃음을 되찾게 된다고 한다. 반면 욕망에 집착하기 쉽고, 남의 일을 지나치게 간섭해서 뜻밖의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항상 몸가짐을 바로해야 한다는 충고를 듣기도 한다.

꿈에 뱀이 나타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바심을 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예기치 않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뱀꿈은 태몽이며, 뱀꿈을 꾸고 낳은 자식은 영특하고 활동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뱀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정주 시인의 시 <화사>에서 뱀은 원초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된다. 징그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이중성을 가진 동물, 고운 색과 아름다운 무늬가 있어 '꽃대님 같다'고 노래한다. 우리는 뱀을 흉측하고 무서운 동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짐을 지켜주는 가신으로 숭배하기도 했다.

오래 전부터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왔으며, 지금은 애완동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뱀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이며 지갑 혁대 구두 등은 인도네시아의 아주 중요한 수출품이다.

남을 해치는 사람을 비유하여 사갈(蛇蝎)이라 하고, 뱀과 전갈을 보듯이 대상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사갈시(蛇蝎視)한다고 말한다.

뱀의 마음에 부처의 입이라는 뜻의 사심불구(蛇心佛口)는 마음은 간악하면서 입으로는 착한 말을 꾸미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족(蛇足)은 쓸데 없는 일을 하다가 도리어 실패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사족을 달다' '사족을 붙이다' '사족을 달자면'이라고 쓴다.

쿤달리니 요가에서는, 사람의 몸에 차크라(중심륵)라고 부르는 에너지 중추 여섯 개가 척추를 따라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그 중 몸의 근본되는 힘이 존재하는 곳으로 알려진 근기륵(물라다라)은 맨 아래 차크라로 회음부에 있으며, 거기에는 뱀 모양의 여신이 잠자고 있다.

요가 수행법으로 여신을 각성시켜 에너지를 순차적으로 위로 올린다. 그 에너지가 맨 위

미간에 있는 차크라(제3의 눈 또는 직관)와 결합

했을 때 비로소 지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오랫동안의 수련을 거친 뒤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데, 뱀은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도 다스려주는 힘의 상징이었던 것 같다. 사력선(蛇力線)이라는 단어는 요가에서 나온 뉴에이지 용어다.

자신의 내적 자아가 자기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지점을 말하는데, 힌디어인 kundalini가 serpent power로 영역되고, 다시 우리 말로 옮겨진 것이다. ♪

